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전교인 의식조사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받는, 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차세대, 대학청년, 장년 대상 국내 캠퍼스 예배에서 설문조사

오늘(13일), 국내 캠퍼스 모든 예배에서 '전교인 의식조사'가 실시된다.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의식조사를 하게 된 배경과 의식조사 내용 등을 들어보았다.



창립 28주년을 보냈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전교인 의식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의식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성도들과 교회가 소통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에 반영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과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의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합니까?

“차세대, 대학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온누리교회 출석 관련, 온누리교회에 대한 의견, 개인 신앙생활과 인식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출석 관련 질문과 온누리교회에 대한 질문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에 다닌 기간, 온누리교회를 선택하게 된 동기, 교회에 대한 만족도, Acts29 비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온누리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분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신앙생활과 인식에 대한 질문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 양육, 성도들과의 교류, 신앙생활 태도, 순, 사역, 생활사 등을 묻는 내

용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에게 더욱 칭찬받는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감, 성도가 참여하는 목회의 방향 설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정기후원자 2만 명 돌파

정기후원 약정행사 3,849명 동참

CGNTV 정기후원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주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3,849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신규후원 약정을 하거나 후원금을 증액했다.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한 이병태·이금희 부부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후원행사에 참여했다”고 했고, CGNTV 개국 때부터 후원해 온 고덕훈 집사는 “CGNTV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CGNTV 유재건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땅 끝 선교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과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로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나 전화(02-796-2243)를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10월 비전헌금 ‘아버지학교’

다음 주일(10월 20일) 서빙고와 양재에서 봉헌하는 10월 비전헌금은 아버지학교를 위해 사용된다.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10월 비전헌금을 봉헌한다.

온누리장로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

온누리장로합창단이 교회창립 28주년을 축하하는 제1회 정기연주회

를 오는 10월 26일(토)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연다.

부흥축제

5~9면 /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3

11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삼상 2:1~11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나 고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불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Church’가 아니라 ‘Community’ 번역했습니다. 교회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중 하나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제도나 조직을 개혁해야 할까요.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로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제도, 조직, 건물만 남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에클레시아로서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온누리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써 때때로 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예배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을 훈련시킨 하나님

이스라엘은 에클레시아의 원형입니다. 교회

의 원형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형성된 민족을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로 부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지도자가 될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소년일 때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곧장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와 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에클레시아의 마음과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분명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죄도 범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이 왕으로 선택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이유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섬기며 고난을 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해서 온유하고 인내하며 그를 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모습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 때부터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강력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다윗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헤브론의 왕이 되기 직전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참된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

야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며 음성 듣는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은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요나단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울이 다스리던 수도를 점령하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로 보면 다윗이 진군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고 해도 다윗을 비난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블레셋을 잘 아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지면 조금하고 초조하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가장 마지막에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상황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기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었습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쭙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주도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위치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위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

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유다의 성읍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소망감과 사명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자신이 안전하게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자각과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의 영성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위치보다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고산지대입니다. 해발 1300미터 이상입니다. 사해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높은 것입니다. 헤브론은 높은 고지였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었던 산지입니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에 그 굴에 사라가 묻혔습니다. 헤브론은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명감 때문에 헤브론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로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위치가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소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위치도 세워주십니다.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참된 교회는 위치나 자리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위치나 자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에도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명과 소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시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과 소명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수의 사람을 구별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돼 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 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시 37:5-9).

여호와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분을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체험한 진리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1년 이상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 헤브론에서 한 부족의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거기서 7년 반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유다 지파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먼저 구별하셔서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사람도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별하셨고, 온누리교회를 부르셔서 온 열방을 에클레시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유다 지파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겉으로 볼 때 국가가 분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지파가 하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분열되어 있더라도 한 지파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지파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과 일치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도둑들도 하나 되면 도둑질 잘 합니다. 좋지 않은 일도 하나가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다윗

로 하여금 유다 지파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먼저 구별하셔서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사람도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십니다.

에클레시아로 변화시키려는 목적

하나님은 다윗 한사람을 통해 400명, 600명을 구별하시고 유다 지파를 구별하시고 난 다음 전 지파를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민족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별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부르셔서 온누리교회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에클레시아로 변

으로 하려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모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문제와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순수한 방송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리대로 지켜낼 수 없을 까?’ ‘계속해서 순수성을 이어가고, 확산시킬 수 있을까?’, ‘참된 에클레시아의 방송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CGNTV가 시작되었고,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CGNTV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숙적들을 축복하는 다윗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에도 그를 애도하고,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보상을 하고 도와줍니다. 다윗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 역사에서 끊지 못하는 사슬, 대적관계에 있었던 숙적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자기편을 만들기 위한 제스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사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행동은 훌륭합니다.

참된 에클레시아 지도자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것을 하나도 열거하지 않고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아멜렉 소년을 죽이면서 진노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보면 정치적이거나기보다는 진심으로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인내했습니다.

하나 하나님께, 두 사람에게. 다윗은 앞서가지 않았습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앞서가지 않았고,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참된 에클레시아 지도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다윗의 헤브론 입성은 그의 정치적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끌어가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yje



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에클레시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강력한 것은 유다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다른 지파에도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CGNTV의 역할도 같습니다. CGNTV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CGNTV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지 한 교회가 방송국을 운영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CGNTV는 온누리교회만을 위한 방송국이 아닙니다.

처음 CGNTV를 시작하려고 할 때 교회연합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시체가 버려졌다는 것을 듣고 어려움 속에도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일종의 사울과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지지세력 집합지입니다.

길르앗 아베스는 사울의 집권세력입니다. 사울이 광란의 질주를 해도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은 무조건 사울편이었습니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 이

온누리 핵심 가치 나누는 ‘비타민C 컨퍼런스’

동아시아A국 목회자, 리더십 160명 참석

지난 10월 9~11일 양재 드림홀에서 동아시아A국 목회자, 리더십을 위한 비타민C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160명의 목회자 및 리더십이 참석해 온누리교회 핵심가치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교회론’을 주제로 강의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하며,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은 동남아시아A국 지도자들이 올바른 교회론을 갖고 사역해 열방으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이번 집회에서 반태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목회철학을, 도육환 목사(이전선교)가 선교비전을, 이 외에도 온누리 핵심가치인 일대일과 큐티, 온누리 양육체계,



10월 9~11일에 열린 비타민C집회에서 동아시아A국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 핵심가치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CGN, 두란노, 아버지·어머니학교, 창조론 등의 사역을 소개했다.

한편 비타민C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 및 리더십들이 부흥축제 기간 동안

안 오전과 저녁집회에 참석해 데이비드플랫 목사와 프랜시스찬 목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수원 순장학교 7주간 진행

새 순장 7명 참여, 39명 등록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 제9기 순장학교. 11월 17일까지 7주간 진행된다.

온누리교회의 꽃 순장을 양성하는 순장학교 과정이 수원 캠퍼스에서 열렸다. 지난 주일(6일) 오픈한 수원 9기 순장학교에는 총 39명의 순장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 7명은 새롭게 순장으로 임명된 성도들이다.

학교의 문을 열어 김평래 목사(수원 온누리교회)는 “순은 공동체의 뿌리인데 리더인 순장은 양을 인도하는 목사로서의 모습과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담스럽지만 복된 곳인 리더의 자리

에서 열심히 섬겨줄 것”을 권면했다.

첫날 강의를 인도한 유선식 목사는 ‘온누리 목회론’을 주제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핵심과 온누리교회 목회의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새롭게 순장으로 임명된 정지완 순장(북누리공동체)은 이번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순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순장이 되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김현철 순장(남누리공동체)은 “소외된 순원을 챙기고 나중에는 분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순장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다.

오는 11월 17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는 수원 순장학교는 찬양과 강의, 조별 나눔의 시간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오늘(13일)은 ‘온누리교회 사역과 영성’을 주제로 조동욱 목사가 말씀을 전한 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온누리에배학교 주중반 모집

17일부터 서빙고 비전홀

서빙고 온누리에배학교 주중반이 오는 17일(목) 개강해 5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주중반 예배학교는 참석학생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배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예배에 대해 생소한 새신자부터 더 깊은 배움을 원하는 지체들까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온누리에배학교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서빙고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iSchool과 데스크에서 받는다.

문의: 김항준 팀장 010-3735-8824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간음한 여인과 초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성전의 《제사장의 딸》에서 이른 비의 축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그리고 자리를 《여인의 딸》로 옮겨 네 모퉁이에 세워진 촛대에 불이 환히 밝혀지고 이튿날 아침까지 밤을 지새는 올나이트(all night) 행사가 벌어진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경건하고 학식 있는 당대의 랍비들과 현인들이 여인의 딸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때로는 햇불을 저글링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노는 행사다. 밤새도록 즐겁게 뛰놀다가 새벽녘이 올면서 축제는 마무리에 들어간다. 이 축제는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랍비들의 인도로 여인의 딸 행사에 모인 무리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젊을 때의 죄를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이다.”

그렇게 밤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어느덧 아침 태양이 떠오른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이다.

이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밤새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했 찬양할 때 눈에 불을 켜고 간음한 여인을 찾아 다녔다.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칠까요?” 예수님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완벽한 울무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날을 잘못 잡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통했는지 모르지만 그 날 그 순간 성전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위기를 온통 덮고 있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감히 어느 누구도 돌을 들지 못하고 하나 둘씩 자리를 뜰 수밖에 없던 상황도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단 둘이 남은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하신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청소년부흥집회 토요패션으로 초대

청소년부흥집회 ‘토요패션’이 시작된다. 토요패션은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거나, 이 세대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집회다.

이번 집회는 ‘JESUS?’를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

요일 오후 6시부터 서빙고 신관 5층 경찬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첫 예배는 어제(12일) ‘배가 고프니? 생명의 떡 예수(요 6:35)’를 주제로 드려졌다.

문의: 안민경 간사 02-3215-3523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온누리 교역자 SUMMIT

프랜시스 찬 목사와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부흥축제에 앞서 온누리 교역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7일(월)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에서 온누리 교역자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기도제목

- 10월 14일(월): 일본 괄기대회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 10월 15일(화):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 10월 16일(수): 모든 팀들과 스태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소서.
- 10월 17일(목): 러브소나타가 진행될 때에 좋은 날씨를 주소서.
- 10월 18일(금): 러브소나타의 모든 출연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10월 19일(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 10월 20일(주일): 이재훈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절대제자

Absolute Disciple

2013 온누리 부흥축제

그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제자 삼으라”

3일 동안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찢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신 예수님.

천히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의 삶을 통해 절대제자의 모형을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로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 손을 내미셨다.

절대제자로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부흥축제 ‘절대제자’는 제자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아가 다시 사명으로 뻗어나갔다. 절대제자는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의 ‘복음’과 ‘주권’, ‘제자의 삶’, ‘사도로 부르심’, ‘나를 따르라’에 대한 말씀으로, 프랜시스 찬 목사는 ‘권리 포기’와 ‘순종’, ‘새 계명을 주노라’, ‘고난 속의 승리’의 메시지로 김준근

장로는 ‘헌신’으로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또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두 목사의 실제 삶을 이야기했다.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행할 것을 다짐했다.

헌신, 결단의 자리로

메시지는 성도들을 실천의 자리로 이끌었다. 오랫동안 입양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왔다는 김해

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입양을 결단했다. 계속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된다”라고 고백했고, 스위스에서 온 진혜원 성도는 “고아와 과부, 양자 삼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양자 삼으며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이재훈 목사

절대제자

Absolute Disciple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눅 9:23~2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제자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고 부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의 집회를 통해 누가복

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강의 2

복음의 능력

데이비드 플랫 목사(브룩힐즈교회)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이 홀로 예수님 옆에 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앉아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와 내내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을 카자흐스탄에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수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양하고 나서 2주 뒤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 후,

셋째를 갖고 싶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딸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입양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들을 보고 제 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육체에서 난 자녀만이 진짜 자녀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

에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첫 질문의 대답을 생각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제자는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 알게 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강의 3

주권

우리가 각기 다른 문제들을 붙잡고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변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변영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변영신학이 성

도들의 마음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영신학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의 목적에 대해 왜곡시킵니다. 선물을 주시는 이보다 선물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수단으로 하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락하신 슬픔과 아픔과 질병의 목적을 희석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변영신학의 문제점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산다는 자체가 어려움을 내포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욕기 전체에 일어났던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

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고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베푸시는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계시록 22장에 쓰여 있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강의 4

‘제자의 삶’

요 15:1~11

진정한 ‘절대제자’는 성경말씀을 완벽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8절).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문화가 복음을 향한 길목에서 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성경말씀이 그 벽을 무너뜨리고 깨끗케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4-6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제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7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만 위시리스트(wishlist)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10절). 말씀은 읽는데서 그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기뻐해야 합니다(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컨퍼런스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부흥집회 1

나를 따르라

마 7:21~23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섯 번 나옵니다. 여섯 가지의 성경구절에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라디칼(radical:절대적, 전적인, 극단적)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이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라디칼한 희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라디칼한 사명을 좇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낚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특한 크리스천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네 번째는 라디칼한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뻐할 것입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메시지 전문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패널토의 '제자 이야기'

프랜시스 찬, 데이비드 플랫, 정은아 아나운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

David Platt: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마 4:19)'는 말씀은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자를 낚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로 사는 삶

Francis Chan: 제 인생가운데 가장 어려운 결정은 17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강한 성도가 되길 원했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유익

한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제자 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년기 이야기, 결혼 생활 스토리

Francis Chan: 부모님 두 분 모두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한 청소년 시역자가 제자양육을 잘 해주신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저를 자식처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몸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아름다운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David Platt: 제가 현재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제 아내에게 더 잘하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바깥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 모두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란?

Francis Chan: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

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본을 보이길 바랍니다. '제자 됨'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모두 '절대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David Platt: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주

위에 알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서도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고 모든 세대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강의 5

'권리포기와 순종'

마 26:36~46

본문에서 예수님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예 얼굴을 땅에 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아버지,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세 번이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시면서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종과 순종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과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부흥집회 2

'새 계명을 주노라'

요 13:34~35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일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네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들이 아내를 섬겨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자신의 것을 버려가면서 아내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배신, 거짓, 시기, 질투 등의 쓴 뿌리와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상처들을 다시 돌려주고 상처 대신 선을 베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력 있고 끌림 있는 신부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깜짝 놀라게 되길 바랍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프랜시스 찬 목사

절대제자

Absolute Disciple

*메시지 전문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의 6

사도로 부르심

행 11:19~30

성경이 있고 성령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라면 교회는 배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안디옥교회는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아닌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흠어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는 사도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안디옥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은 지식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가운데 위대한 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보통사람들이 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은 보통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지구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축복합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

강의 7

고난속의 승리

딤후 3: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12절)”

고난과 핍박을 받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도망갈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한다면 핍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

난을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복음을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받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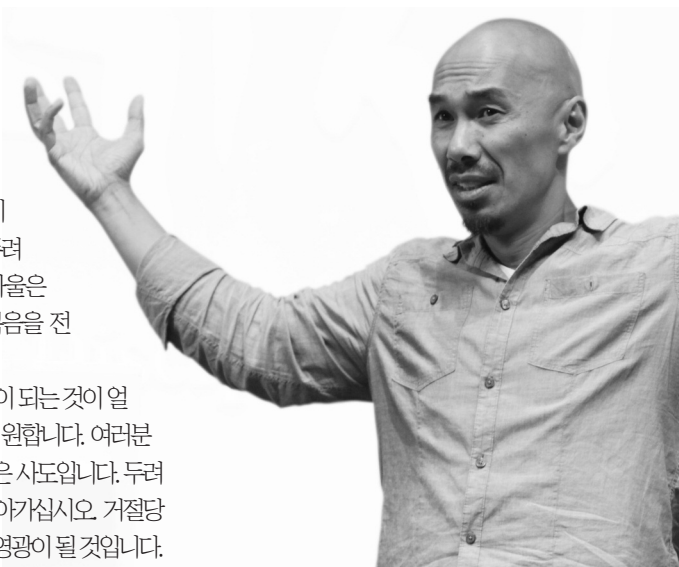
어떻게 해야 주변의 만지 않는 형제자매가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 이외에 자꾸 어떤 것을 추가하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늘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프랜시스 찬 목사

특강



김춘근 장로(JAMA)

“헌신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 뜻 정성 사랑 영혼 성품 인격 재능 능력 힘 지식 재물 노력 시간 몸을 끝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제자
Absolute Disciple

*메시지 전문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부흥집회3

너희와 함께 하리라

프랜시스 찬, 데이비드 플랫 목사

마 28:18~20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며 중요한 말을 하려 할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말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외한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세상의 입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제자를 삼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록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아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를 삼는 것, 나눔을 통해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때 세례를 줍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왜 세례를 언급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삶이 어떤 관계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제자가 되는 것, 제자화 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양육이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

는 사람에게 제자로 사는 것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제자된 모습을 통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 또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제970호 | 2013년 10월 13일(주일)

절대제자
Absolute Disciple

2013 온누리 부흥축제
현장 스케치

3일

9일 공휴일의 원도 마다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첫날 아침부터 현장 등록처가 북적였다. 온누리 성도부터 햇볼트리니티 신학생, 선교사,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사모, 중국 리더십 등 절대제자를 소망하는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이재훈 목사는 “제자의 삶은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의 부활로 변화되는 것”이라며 절대제자의 삶을 그렸다.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는 “제자 된다는 것은 제자를 낳는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프랜시스 찬 목사는 말씀만 먹고 행동하지 않는 한국 성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날 부흥집회에서 강단에 함께 오른 두 목사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라”라며 성령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 제자는 결국 제자를 낳아야 진정한 의미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말씀 후 두 목사는 이재훈 목사를 위해 안수기도 했고 이어 성도들이 손을 뻗어 이 목사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

집회 중간에 열린 특순도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샌드애니메이션은 절대제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표현했고, 장로합창단과 세라핌은 함께 한찬 목소리로 승전가를 노래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가수 박기영 자매와 교역자들의 은혜로운 찬양에 참석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가브리엘 오보에 연주와 연합성가대의 찬양은 사랑을 아름답게 울렸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말씀 놓칠 새라 노트에 열심히 기록하는 참석자들
◀특순-장로합창단과 세라핌 브라스
▼9일, 10일에 사랑홀 앞 광장에서 프랜시스 찬과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의 북 사인회가 진행됐다.





지난 9일(수)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열렸다. 미주, 중국, 일본, 본부(시드니, 아부다비, 호치민) 등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 목회자 등 130여명이 모여 비전을 나눴다.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목회의 유일한 자원은 오직 '복음'

지난 9일(수)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온누리 부흥 축제 일정에 맞춰 열린 비전컨퍼런스에는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교회 목회자, Acts29협력위원회 장로, 자매결연 공동체 대표장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Acts29본부장)는 30개 해외 비전교회와 장로, 국내 캠퍼스

퍼스, 본부장 목사 등을 소개하며 Acts29 비전컨퍼런스의 문을 열었다.

박종길 목사는 "해외 비전교회가 세워진지 10여 년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한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훈 담임목사가 '비전 나눔'

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어떤 곳에 있든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며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자원을 가지고 사역할 것"을 당부했다.

/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기자

'비전 나눔'

온누리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자원은 '복음'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문화가 온누리의 자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비전교회는 온누리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국내 캠퍼스 또한 서울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전하는 교회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화적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의 유일한 자원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성도들로 교회가 출발할지라도 복음만 잘 전달한다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유일한 자원이라는 생

이재훈 목사



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사역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력 있는 성도, 도울 수 있는 청년,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축제에서 프랜시스 찬 목사님과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님을 초

청한 이유는 이분들에게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이곳에 모인 온누리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이 부흥 축제 기간에 이 복음의 자원을 가지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해외비전교회 현황

비전교회	담당교역자	창립년도	창립일
대련	송대현	1996	10. 22
단둥	손신국	1999	04. 04
오사카	문봉주	2000	04. 23
동경	장재운	2001	04. 07
우에다	야마구찌 키요타카	2001	10. 27
야치요	권영환	2002	07. 03
얼바인	권혁빈	2002	10. 13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2003	01. 18
보스턴	정인홍	2003	05. 11
뉴질랜드	유현목	2003	06. 08
요코하마	김철희	2003	06. 10
밴쿠버	안광복	2003	12. 21
포틀랜드	곽성환	2004	05. 30
노스시카고	이기진	2004	06. 27
상해	이기복	2004	08. 29
광	최용준	2004	11. 27
앵커리지	이민욱	2005	02. 17
시드니	이기훈	2005	05. 07
샌디에고	김성원	2005	07. 31
북경	강부호	2005	10. 16
뉴욕IN2	마크최	2005	11. 06
장춘	박시형	2006	05. 04
청도	노치형	2008	03. 03
나고야	요시하라 마나부	2008	05. 15
네이퍼빌시카고	이중재	2008	11. 23
아부다비	노규석	2011	06. 03
호치민	이종훈	2011	08. 21
산타모니카	김재석	2012	04. 28
뉴저지	마크최	2012	05. 06
교토	야마나카 토모요시	2012	05. 06

창립 28주년 특집 /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3

온누리 순교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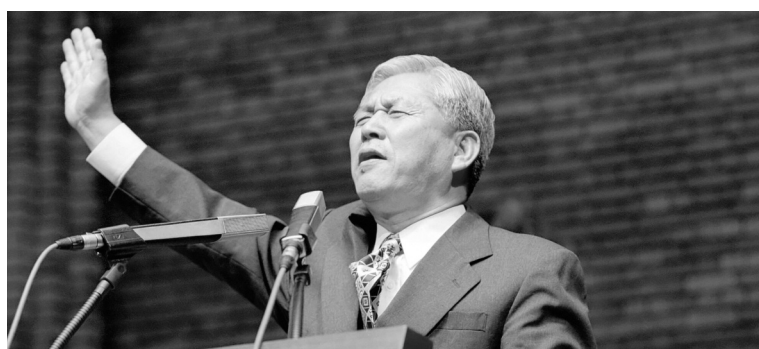
2000년 새해 첫날, 온누리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1993년 학원 선교와 제과제빵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으로 파송된 박승철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박모세 선교사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온누리교회 첫 순교자가 되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가족은 물론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순교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다.

2004년 2월 21일, 온누리교회는 또 다른 순교자로 인해 슬픔에 젖었다. 김사무엘 선교사때문이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2003년 9월 18일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이라크 땅에 들어가 그 해 10월 10일에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를 세웠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이 교회에 머물며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돌보던 중 하리에 통증을 느껴 12월 한국에 돌아와 검사를 받던 중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미국 조지타운병원에 입원해 투병했다. 수술 후에도 김사무엘 선교사는 바그다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늘 바그다드를 염려했지만 생전 소망대로 발립보서 1장 20-21절 말씀으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려야 했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온누리교회와 일본, 이라크, 중국 등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1993년부터 1995년 6월까지 중국선교사로 언어 훈련과 교회 지도자 훈련을 해온 김사무엘 목사는 1995년 7월에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로 부임해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총괄했다. 1993년 C&MA교단으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후 東京에서 시브야教會를 개척했고, 이후로도 吉川(Yoshikawa)복음교회(1986년), 市川(ichikawa)복음교회(1988년), 센겐다이교회(1989년), 成田(Narita)복음교회(1990년), 八千



2004년 6월 8일 몽골 도르노트 도립병원 2층에는 고 심재학 형제를 기념하는 도서관이 마련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그다드를 떠올리며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던 김사무엘 선교사.



1993년 4월 파송받아 2000년 1월 57세의 나이로 그가 품었던 중국에서 눈을 감은 박승철(박모세) 선교사

代(Yachiyo)복음교회(1990년) 岐阜(Gifu)얼라 이언스교회(1991년) 등을 개척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도 교회 개척은 계속되어 온누리교회에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

국내 선교지에서도 첫 순교자가 생겼다. 2004년 8월, 고 이태화 형제가 경남 하동 화개제일 교회에서 이웃리치 팀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온누리 순교열전을 이어갔다. 고 이태화 형제는 선교사로 파송된 적은

없지만 순교자 반열에 올랐다. 2005년 6월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권소망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소천했다. 권 선교사가 치료 받던 군인병원 복도에서는 하루 세 번 예배가 이어졌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찾아온 중국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달, 창조과학회 1호 선교사이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전광호 선교사의 소천 소식도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학원 선교를

하다 지병 치료차 들어왔는데 생을 마감한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인도네시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창조과학회 요청을 듣고 육신의 안녕을 과감히 뒤로했던 그였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진리처럼 그들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고 있다.

당신의 뒤 따르겠습니다



김사무엘 선교사

에 입학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지만 그 분은 졸업하던 날, 하나님께서 주신 '7개 일본교회 개척'이란 비전에 순종하여 곧바로 선교지로 뛰어드셨습니다.

신학교 만학도, 선교의 젊은 열정 품고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지만, 'ACTS 29'는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 그분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강직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성령 세례를 받아 바로 주변을 정리한 후 41세 때 신학교

분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달려간 그분은 시부야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7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시부야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일본 현지인 300여 명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하면 모두 5백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굉장한 큰 모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선교사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사역을 접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북한, 중국으로 가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을 떠나 온누리교회 선교팀을 이끌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다니며 선교 지경을 넓혀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명 좇아 이라크로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라크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그분은 청년들과 팀이 되어 이라크로 떠나셨고 곧 NGO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빈발하는 테러로 한국대사관에 서 교민들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라크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하리에 통증을 느끼고 귀국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혈액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병원 2차 정밀 검사에서도 결과가 같아 곧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ACTS 29 비전 꽃피운 밑거름

저는 고인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9년 동안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안식년에도 아랑곳 않고 생명을 걸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드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셔서 저와 교회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선교 사역도 많은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영광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순교는 ACTS 29 비전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누리 3만 성도는 그분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2천1만 비전을 꽃피우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 금면류관을 바라며 죽기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

온누리신문 477호(2004.2.29.)



기차타고 떠난 어르신들의 행복여행

청파노인복지센터, 가을 나들이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지난 8일(화), 청파노인복지센터와 KORAIL이 함께 준비한 제5회 청파가을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번 청파가을나들이에는 복지센터 직원을 비롯해 KORAIL 직원, 서울역 봉사회 등 30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섬겼다.

몸이 불편해서 쉽게 나들이를 떠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홀로 살거나 형편이 어려워 여행하는 것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떠나는 나들이에 한껏 들떠있었다. 240여 명의 어르신들은 기차로 떠나는 여행에 출발 전부터 설레임 가득한 표정이었다.

출발 전 서울역에서는 롯데마트(서울역지점, 김영준 점장)의 후원품 전달식과 성장현 용산구청장, 박철환 서울지역본부장의 축사, 단체사진 등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은 3개의 조로 나누어 새마을호 기차와 버스를 타고 경기도 용인 농촌테마파크와 내동마을로 향했다.

내동마을에서는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고 마을회관 식당에서 연꽃잎 밥 등 유기농 식단으로 이뤄진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인 농촌테마파크에서는 코스모스와 다양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 ‘꽃과 바람의 정원’을 신쾌하고 곤충전시관, 농경문화전시관 등

을 구경했다. 어르신들이 가장 재미있었던 순서는 다육식물체험이었다. 다육식물을 키우고 있는 식물농장(대아농원)을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식물을 직접 화분에 옮겨심으며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었다.

청파노인복지센터에 다닌 지 5년째라는 공교로운 어르신은 “복지센터를 통해 붓글씨, 영어, 건강체조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한 번 나들이를 떠나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해주셔서 참 고맙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인터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에 보람 느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파동에는 독거노인 차매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해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5번째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소풍은 KORAIL, 서울역 등 지역사회와 많은 후원으로 이루어져 더 뜻깊은 시간이 되

그런 분들도 이번에 기차를 타고 가을소풍을 간다고 기뻐하시면서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떠나는 나들이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옥자 센터장



“아름다운 가을에
다양한 배움 즐기세요!”

<서빙고>

《열린다성경아카데미 가을학기 세미나 안내》

일시: 12/9까지(매주 월, 총10회)

과목: 오전반(성막, 성전, 절기), 오후반(신약심화과정), 저녁반(구약심화과정)

장소: 서빙고 은누리교회 EM전시관

문의: 010-4902-1022, www.openbiblekr

■ 헬로맘 출산후 스쿨

내용: 출산 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세미나

일시: 10월 18일~11월 28일 매주 금 오전 10시30분~

장소: 서빙고 EM전시관(쌍용빌딩 1)

회비: 5만원

접수방법: iSchool에서 수강신청

문의: 길은미 팀장 010-9040-0337

■ 용감한친구들 3기 모집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전학년 40명(학부모 동반하여 안됨)

내용: 어린이 창조과학탐사여행

장소: 창조자연사박물관, 시화호 공룡알 유적지

일시: 10월 12일(토) 오전 8시~저녁 6시(서빙고 성전 정문 앞 관광버스 출발)

회비: 2만원(교통비, 입장료, 체험학습비, 식사 간식 및 교재 포함)

문의: 문혜자 집사 010-3892-8800

■ 아베스맘 2013 가을세미나

대상: 남편을 잃은 사별 여성, 사별사역에 관심있는 성도들

내용: 사별의 슬픔과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맞으며 건강한 사별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영성과 소망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 세미나

기간: 11월 5, 12, 19, 26일(화) 오후 6시3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403호

회비: 3만원(저녁식사, 교재비 포함)

문의: 팀장 010-2271-0073, 총무 010-4252-9459

■ 43기 내적치유학교

일시: 10월 25-27일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도록 돕는 스쿨

장소: 파주제자교회수양관

등록비: 12만원

문의: 장성란 010-5072-5004, 강춘화 010-3885-6339

■ 인투싱글즈훈련학교

일시: 11/5-12/10, 매주 화, 19:00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문의: 02-3215-3551

<양재, 도곡>

■ 자서전쓰기강좌

일시: 10/26~12/28, 매주 토, 18:30

장소: 햇빛트리나티 평생교육원 이스라엘홀(B2)

문의: 02-572-1614

■ 스포치학과 PSC

일시: 10/29~12/3, 매주 화, 19:00

장소: 도곡교육관 2층 충성홀

문의: 02-512-0588

■ 스포치클럽리니

일시: 10/28~12/16, 매주 월, 19:00

장소: 도곡교육관 2층 화평홀

문의: 02-512-0588

■ 발성발음클리닉

일시: 11/5-12/10, 매주 화, 19:00

장소: 도곡교육관 2층 화평홀

문의: 02-512-0588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群馬



Sonata 군마

2013.11.14(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 사

온 누 리 교 회 담 임 목 사



배재철
(테너)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교회)



니지마학교성가대
(찬양·핸드벨)



박진아작가
(샌드애니메이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CGNTV** **Duranno**